



## 양돈자조금 거출금액 '두당 6백원' 확정

###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개최 대의원회 의장에 이병모 대의원 선출

제2기 자조금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양돈자조금 대의원회가 지난 11월 12일 대전 샤또그레이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의원회는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이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써, 제2기 대의원들의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다.

#### 자조금 거출금 600원 인상 결정

지난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146명의 대의원 가운데 이날 참석한 125명의 대의원들은 양돈자조금 사무국으로부터 양돈자조금 조성 및 집행실적, 추진실적 등을 보고 받고, 대의원회 의장으로 양돈협회와 농협 양 단체가 협의 추천한 이병모



▲ 이병모 제2기 대의원회 의장

대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의무거출금 납부여부 결정안을 승인하면서 자조금 거출금을 현행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 제2기 대의원들은 자조금 거출금 600원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거출금과 관련, 대의원 가운데서 500원 인상안이 도출되어 400원, 500원, 600원 인상안을 비밀투표로 실시했으며, 투표결과 118명중 65명이 600원 인상안에 찬성하여 거출금 인상이 결정됐다.

## 총 137억 1천만원의 2008년도 사업 예산 의결

이에 따라 내년에는 농가거출금 74억1천만원, 정부지원금 50억원, 이익잉여금 3억원, 기타조성금 10억원 등 총 137억1천만원의 예산을 조성기로 결정하고, 소비홍보사업에 83억8천7백만원(61.2%)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 24억4천4백만원(17.8%) 자조금 거출홍보 활동 1억7천2백만원(1.3%) 조사연구 2억4천2백만원(1.8%) 징수 수수료 3억7천만원(2.7%) 운영관리 6억1천5백만원(4.5%) 예비비 14억8천만원(10.8%) 등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대의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 지명 및 감사 위촉(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명·위촉된 관리위원회는 양돈협회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 윤상익 여주축협조합장, 천일농장 최종문 대표, 양돈협회 전홍우 충북도협의회장, 이제만 대전충남양돈조합장, 양돈협회 장장길 충남도협의회장, 청수농장 김규석 대표, 양돈협회 김현욱 김제지부장, 양돈협회 최희태 부회장, 양돈협회 김성곤 경북도협의회장, 대구경북양돈조합 이병규 이사, 오봉농장 김광위 대표, 양돈협회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 양돈협회 박영종 남제주지부장, 진길부 도드람양돈조합장, 박종수 한국자조금연구원장이며 감사는 이정배 서울경기양돈조합장, 양돈협회 정일희 이사이다.

## 직선제 도입으로 대의원회 역할 강화해야

그러나 의장 선출과 관리위원회 위원 지명 등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2기 대의원이 50% 이상이 바뀐 상황에서 대의원 임원 선출이 사전 정보 없이 축산단체의 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대의원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의장과 관리위원장 등은 대의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또 무엇보다 제1기 대의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인데도 시정된 바가 없다고 지적, 이를 바꾸겠다는 의지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천을 보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돈육으로 국민건강, 양돈으로 농촌건강

# “양돈자조금 대의원 권한 강화돼야”

관리위원장에 윤상의 조합장 선출  
양돈농가대표 관리위원 13명 전원 사퇴 표명



지난 11월 12일 대전 샤프그레이크스호텔에서 개최된 2007년 제2차 양돈자조금 대의원회에 이어 제2기 임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관리위원회는 김진태 전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위원장을 선출키로 하고, 이날 관리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은 김동환 양돈협회장과 윤상의 여주축협조합장 두 후보 가운데 윤상의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돈농가 대표 관리위원 전원이 즉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장을 퇴장, 양돈자조금 관리위원의 과반수가 넘는 위원 13명과 1명의 감사가 사퇴를 표명했다.

한편 사퇴의사를 밝힌 관리위원들은 대의원총회에서 요구한 대의원의 민의가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양돈농가의 중론을 모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계기로 양돈자조금이 양돈농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돈자조금 양돈농가 뜻 반영돼야

이와 관련하여 관리위원직 사퇴를 표명한 위원들과 대한양돈협회가 지난 11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돈자조금이 양돈농가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관리위원 사퇴를 표명한 양돈농가 대표 관리위원 13명(김진호·최종문·전홍우·장장길·김규석·김현욱·최희태·김성곤·이병규·김광위·박창식·박영종·박종수 위원)과 감사 1명(정일희 감사)은 제2기 대의원 총회에서 집중적으로 성토된 자조금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1기 대의원회에서 정리되지 못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즉 대의원회의 뜻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양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한 자에 대해 승인만하는 거수기 역할이 아닌 직접 선출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양돈협회는 지난 11월 1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개최를 통해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관리위원 재선출로 양돈자조금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으며, 21일에는 양돈원로자문위원회를 통해 양돈자조금 사업을 비롯한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돈**